

논문접수일 : 2011.12.24

심사일 : 2012.01.05

게재확정일 : 2012.01.21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청바지 착용실태 및 선호디자인과 맞음새 연구

A Research on wearing practice, Design Preferences, and the fit of the
Blue Jeans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China.

주저자 : 오 순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교수

Oh soon

Kyungwon University Dept. of Clothing

교신저자 : 임정순

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의상디자인

Yim jeoung-soon

Konkook University, Dept. of Apparel Design

* 이 연구 논문은 2012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과제번호 : KWU-2011-R342 (신청번호)

1. 서론

2. 연구방법 및 절차

- 2.1. 연구대상
- 2.2. 분석항목
- 2.3. 분석방법

3. 연구결과 및 고찰

- 3.1. 청바지 선호디자인과 맞음새, 착용실태 고찰.
- 3.2. 청바지 구매 시 중시부분과 수선부분 고찰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청바지는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착용하는 실용적이며, 일상적인 의류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는 청바지를 착용하는 한국과 중국 여대생의 디자인 선호도에 따른 착용실태 및 체형, 맞음새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청바지의 중요한 요소인 스타일별 선호도와 청바지의 맞음새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가의 결과를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 내용을 조사 하였다.

설문 결과 한국 여대생이 청바지 맞음새와 디자인, 실루엣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좁은 바지통에 기본 허리선 보다 낮은 허리선을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중국 여대생의 체형이 한국보다 한 사이즈 정도 컸으며 청바지 사이즈와 맞음새의 정도도 중간 허리선 위치를 선호하여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국 모두 치수, 가격의 항목에서 유의사항이 없었으며, 체형의 분포와 보유 벌수를 감안하여 청바지를 선택하는 중요 요인으로는 디자인 요소가 공통적으로 우선시 되었으며, 다음으로 한국은 실루엣을 추구하고, 중국은 착용감 및 안정감을 더 추구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여대생의 청바지에 대한 태도는 유행성과 심미성을 중시하고 구매 행동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실리적 구매패턴을 보였으며, 맞음새가 좋은 고품질의 제품을 원하고 있다.

주제어 : 청바지 착용실태, 선호디자인, 맞음새

Abstract

Regardless of age or sex, blue jeans are considered a practical and everyday item of clothing.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nd analyse via questionnaire the design preferences of Korean and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regards to blue jeans.

It i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their attitudes towards size and fit, and how this affects choice of blue jeans.

According to the research, female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are highly considering the design and fit of jeans. Therefore, they tend to prefer tight and low-rise jeans. The average jean size of Chinese female students is about one size bigger than that of Korean students.

Compared to the preferred jeans of Korean students, Chines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prefer relatively bigger sizes and high-waisted jeans, which indicates that Chinese female students place more value on comfort. In this research, female students of both countries didn't have outstanding requirements regarding the size and price of jeans; however, their first consideration of choosing the right jeans is dependent on design regardless of nationality. Students from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second consideration: Korean students place more value on style and fit of jeans other than the design, while Chinese students tend to prefer comfort as their second consideration on choosing the jeans.

The purchasing attitudes toward jeans by both Korean and Chinese female students indicates that they place more value on fashion trends and aesthetics, and at the same time, they pay more attention to the price and its practicality. In addition to this, they also tend to prefer jeans that fit perfectly and are of a high quality.

Keyword : BlueJeans wearing practice, design preferences, fit.

1. 서론

패션 제품은 사회의 변화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소비재이다. 특히 청바지는 변화된 소비자의 의식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의류제품이라 할 수 있다.

청바지는 다른 소재에 비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가공 방법으로 인한 표현 방법의 다양성으로 패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소비계층이 넓고 상표 이미지 추구하고 혜택을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젊음을 대표하는 청바지는 노동복이 아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올라 나이와 계층의 파괴를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청바지는 실용적인 옷이면서, 최근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청바지를 감성적인 패션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희승 외, 2000).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캐주얼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청바지 제품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반적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패션 진(Fashion Jea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천중숙, 2005). 다양한 디자인의 청바지가 유행하여 청바지를 착용하는 연령대와 선호자의 태도와 인식은 사회가 변해갈수록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소비 시장이 글로벌화 되고 있다.

다른 의류 품목에 비해 바지는 맞음새(fit)의 문제가 민감하기에 소비자들은 대부분 기성복 바지를 구매할 때 미리 착용하여 맞음새를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한다(Eckman M., 1990). 그 중, 청바지는 다탈(Dart)이 없으며, 소재의 특성상 두텁고 신축성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여유 량이 적고, 높은 맞음새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성복 바지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기성복 맞음새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용 바지의 기본 치수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치수 체계가 이루어지므로 밑위길이나 바지 길이와 같은 치수가 기성복 바지 치수 설정에 반영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김양원, 2001). 특히, 청바지는 다양한 디자인 변화와 스타일 선택에 따른 맞음새의 만족도가 수선률로 이어져 청바지 구입시 디자인 선호도와 착용 후 맞음새에 관한 만족요인이 청바지 선택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청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복합적이며, 성별에 따라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청바지를 구매할 때 색상, 코디네이션 방법, 액세서리, 스

티치와 같은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와 날씬해 보이는 실루엣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성보다 청바지 치수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애란, 1994).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청바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남성은 허리둘레를 사용하는 반면, 20대 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바지를 선택하기 위해 허리둘레 보다 엉덩이둘레나 넓다리 및 밑위 부분이 불편하지 않는 사이즈의 바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김현아, 2004). 연령별 여성의 청바지 착용 실태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착용 횟수를 보여주며, 편안함을 이유로 청바지를 구매하여 수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지영,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성들이 엉덩이와 넓다리 부위의 맞음새가 만족스러운 청바지를 구매하려고 하며, 청바지의 착용을 통해 날씬하고 매력적인 하반신 실루엣을 연출하려는 목적으로 청바지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용 패션 진들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성이 우수한 스판덱스를 함유한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Choi E. A. 2007). 이 선행 연구는 청바지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바지 시장은 수입브랜드 비중이 높으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에 따라 국가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는데, 생산기지로써의 중국과 패션시장으로써의 한국의 교류가 점점 많아져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바지를 착용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과 중국여대생의 선호디자인에 따른 착용실태 및 체형, 맞음새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결과를 통해 한국과 중국여대생의 청바지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청바지업체의 디자인과 고품질 생산에 참고할 수 있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연구대상

조사 방법은 2010년 4월1일부터 2010년 4월10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미완점을 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2010년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조사는 한국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9~25세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명 조사하여 그 중 통계 처리가 가능한 171명을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중국은 상하이(上海)에 거주하는 19~25세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150명 조사하여 그 중 통계 처리가 가능한 134명을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총 305명의 응답이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분석항목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김현아(2004), 임지영(2006), 김선희(2008), 어미경(2007)의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문항들과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국문으로 작성한 후 번역 작업을 거쳐 중국어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여대생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완성하였다. 청바지에 대한 친숙도와 추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유 기수식 탐색 조사에서 나타난 문항과 선 연구에서 추출한 문항을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친숙도 및 추구 이미지 9문항이 선정 되었다.

설문지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청바지 구매 선호디자인 문항, 구매 시 치수 만족도 문항, 보유 벌 수 및 착용 횟수 문항, 대표 부위의 치수 만족도 문항, 맞음새 관련 문항, 수선 여부에 대한 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t-test)등을 실시하였고, 전 항목별 무응답은 missing value 로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집단보다 높고 의복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여대생을 대상으로 20대 초반의 여대생의 신체 특성에 따른 청바지 선호디자인과 구매 특성 및 맞음새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여 양국의 청바지 선호디자인과 맞음새 요소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3.1 청바지 선호디자인과 맞음새, 착용실태 고찰

한국과 중국 여대생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비교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N=305)

인구통계적 특성		빈도 (%)	
		한국(n=171)	중국(n=134)
의류지출비용	10만원미만	44(25.7)	96(71.6)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73(42.7)	31(23.1)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36(21.1)	4(3.0)
	30만원이상-40만원미만	11(6.4)	1(0.7)
	40만원이상-50만원미만	5(2.9)	0(0.0)
	50만원이상	2(1.2)	2(1.5)
	합계	171 (100)	134 (100)
키(cm)	150미만	2(1.2)	0(0.0)
	150이상-155미만	4(2.3)	2(1.5)
	155이상-160미만	40(23.4)	15(11.2)
	160이상-165미만	82(48.0)	53(39.6)
	165이상-170미만	34(19.9)	42(31.3)
	170이상-175미만	8(4.7)	20(14.9)
	175이상	1(0.6)	2(1.5)
	합계	171 (100)	134 (100)

[표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한국은 평균 키가 작은 결과(키= 160 - 165미만이 48%, 165 - 170미만이 19.9%)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키가 큰 (키 = 160 - 165 미만이 39.6%, 165 - 170 미만이 31.3%) 분포를 보여준다. 따라서 체형이 한국보다 중국이 약간 큰 편 이었다.

의류 지출 정도를 보면 청바지 구입 가격은 한국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은 42.7%, 10만원 미만은 25.7%로 고가의 청바지도 구입이 용이한 성향을 보이고, 중국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은 23.1% , 10만원 미만은 : 71.6%을 보여 청바지를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구입하는 성향을 보인다.

(N=305)

국 가	한국		중국	
	빈도	(%)	빈도	(%)
스타일				
일자형	19	11.1	42	31.3
부츠컷 (반나팔)	8	4.7	15	11.2
완전나팔형	0	0.0	4	3.0
통바지형	2	1.2	7	5.2
스키니형	146	85.4	68	50.7
합계	175	(102.3)*	136	(101.5)*

[표 2] 선호 청바지 스타일 비교 *복수응답

선호 스타일이 한국은 스키니형: 85.4% > 일자형: 11.1% > 부츠컷(반나팔): 4.7% 순이며, 중국은 스키니형: 50.7% > 일자형: 31.3% > 부츠컷(반나팔): 11.2% 순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신체에 밀착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N=305)

국 가	한국		중국	
	빈도	(%)	빈도	(%)
스타일				
일자형	20	11.7	41	30.6
부츠컷 (반나팔)	8	4.7	12	9.0
완전나팔형	1	0.6	1	0.7
통바지형	2	1.2	7	5.2
스키니형	142	83.0	73	54.5
합계	173	(101.2)*	134	(100.0)*

[표 3] 착용 청바지 스타일비교 *복수응답

실제로 착용하는 청바지 스타일을 비교하면 한국은 스키니형(83%)이 제일 많았으며 일자형(11.7%), 부츠컷(4.7%) 순서로 몸에 밀착 시키는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중국은 스키니형(54.5%) > 일자형 (30.6%) > 부츠컷(9.0%)으로 순서는 한국과 같지만 한국보다는 스키니형의 착용이 적었다.

국 가	빈도 (%)		
	한국	중국	합계
일치여부			
일치한다	155 (90.6)	101 (75.4)	256 (83.9)
일치하지 않는다	16 (9.4)	33 (24.6)	49 (16.1)
합계	171 (100)	134 (100)	305 (100)

$$\chi^2 = 12.991^{***}$$

[표 4]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의 일치여부 ***p<0.001

먼저 설문 문항 결과 [표 2, 3]에 따른 선호 스타일과 착용 스타일의 일치여부의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은 90.6%가 선호 스타일대로 옷을 실제로 착용하였고, 중국은 75.4%가 실제로 착용하여 선호 스타일대로 착용 여부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N=305)

국 가	한국		중국	
	빈도	(%)	빈도	(%)
특성				
허리둘레	26	15.2	40	29.9
엉덩이둘레	29	17.0	47	35.1
넙다리둘레	48	28.1	21	15.7
무릎둘레	1	0.6	6	4.5
허리선위치 (밑위길이)	11	6.4	7	5.2
바지길이	9	5.3	5	3.7
바지통	40	23.4	8	6.0
바지단폭	8	4.7	3	2.2
합계	172	(100.6)*	137	(102.2)*

[표 5] 청바지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옷 사이즈 부분 *복수응답

청바지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옷의 맞음새 부분은 한국은 넙다리 둘레(28.1%) > 바지통(23.4%) 순으로 중국은 엉덩이둘레(35.1%) > 허리둘레(29.9%)

를 고려하여 구매하여 좀 더 신체에 편안한 맞춤새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N=305)

부위\디자인	한국		중국	
	빈도	(%)	빈도	(%)
허리	41	24.0	24	17.9
엉덩이	26	15.2	37	27.6
골반	6	3.5	7	5.2
배	8	4.7	8	6.0
넙다리	43	25.1	25	18.7
무릎부위	5	2.9	7	5.2
바지길이	21	12.3	16	11.9
밑위길이 (허리선높이)	9	5.3	4	3.0
기타	13	7.6	7	5.2
합계	172	(100.6)*	135	(100.7)*

[표 6] 청바지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신체 사이즈 부분 *복수응답

청바지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한국은 넙다리(25.1%)와 허리(24.0%)를 우선시하며, 중국은 엉덩이(27.6%)와 넙다리(18.7%)를 고려하여 구매 하였다.

(N=305)

허리선 위치	빈도 (%)		
	한국	중국	합계
허리선	17 (9.9)	32 (23.9)	49 (16.1)
반 골반 (허리와 골반사이)	108 (63.2)	66 (49.3)	174 (57.0)
골반	44 (25.7)	29 (21.6)	73 (23.9)
낮은 골반 (골반 아래)	2 (1.2)	7 (5.2)	9 (3.0)
합계	171 (100)	134 (100)	305 (100)

$\chi^2 = 16.342^{**}$

[표 7] 청바지 구매 시 선호허리선 위치 **p<.01

청바지 허리선 위치는 착용감에서 디자인에 따른 라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중요 요소이다. 한국은 반골반(허리와 골반사이)63.2% > 골반(25.7%) > 허리선

(9.9%) 순서로 선호하여 밑위가 짧은 반면, 중국은 반 골반(허리와 골반사이)49.3% > 허리선(23.9%) > 골반(21.6%) 순서로 선호하여 한국보다 밑위가 긴 편안함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여성들이 엉덩이와 넙다리 부위의 맞춤새가 만족스러운 청바지를 구매하려고 하며, 청바지의 착용을 통해 날씬하고 매력적인 하반신 실루엣을 연출하려는 목적으로 청바지를 착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

양 국 간 바지 구매 시 선호허리선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 국의 선호 허리선 위치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낮은 골반 위치는 선호하지 않고 반골반이나 골반 위치를 선호한 반면, 중국의 경우 허리선이나 반 골반, 골반순서로 선호하고, 낮은 골반을 한국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의 바지 구매 시 선호허리선 위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이즈	빈도 (%)		
	한국	중국	합계
25인치	19 (11.1)	4 (3.0)	23 (7.5)
26인치	108 (34.5)	49 (36.6)	108 (35.4)
27인치	44 (24.0)	51 (38.1)	92 (30.2)
28인치	2 (22.2)	26 (19.4)	64 (21.0)
기타	14 (8.2)	4 (3.0)	18 (5.9)
합계	171 (100)	134 (100)	305 (100)

$\chi^2 = 15.338^{**}$

[표 8] 청바지 구매 시 구매사이즈 **p<.01

양 국 간 청바지 구매 시 구매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사이즈가 26인치 > 27인치 > 25인치 순서로 구매하였으며 중국은 27인치 > 26인치 > 28인치 순서로 구매하였다. 한국은 26인치(한국:34.5% 중국:35.4%) 중국은 27인치 (한국:24.0% 중국:38.1%)가 제일 많았다. 중국 여대생이 한국보다 한 사이즈 정도 컸으며 25인치와 28인치 이상의 평균이하의 사이즈나 평균이상의 사이즈를 구매하는 빈도는 한국보다 적었다.

국 가	빈도 (%)		
	한국	중국	합계
횃수			
없다	8 (4.7)	1 (.7)	9 (3.0)
1~3회	108 (63.2)	77 (57.5)	185 (60.7)
4~6회	38 (22.2)	38 (28.4)	76 (24.9)
6~7회	11 (6.4)	8 (6.0)	19 (6.2)
7회이상	6 (3.5)	10 (7.5)	16 (5.2)
합계	171 (100)	134 (100)	305 (100)
$\chi^2 = 7.738$			
$p < 0.5$ * $p < 0.01$, ** $p < 0.001$			

[표 9] 연간 청바지 구매 횃수

양국 간 연간 청바지 구매 횃수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연간 청바지 구매 횃수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1~3회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4~6회 구입 역시 양국 모두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다른 구입횃수에 비해 7회 이상 구입 빈도는 낮게,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은 다른 구입횃수에 비해 7회 이상 구입 빈도는 높게,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낮게 나타났다.

(N=305)

국 가	빈도 (%)		
	한국	중국	합계
횃수			
1회이하	46 (26.9)	13 (9.7)	59 (19.3)
2~3회	60 (35.1)	60 (44.8)	120 (39.3)
4~5회	46 (26.9)	41 (30.6)	87 (28.5)
6~7회	19 (11.1)	20 (14.9)	39 (12.8)
합계	171 (100)	134 (100)	305 (100)
$\chi^2 = 14.495$ **			

[표 10] 주간 청바지 착용 횃수 * $p < 0.01$

양국 간 주간 청바지 착용 횃수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주간 청바지 착용 횃수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2~3회 착용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국보다 착용 횃수가 1회 이하는 높게, 2~3회, 4~5회, 6~7회 착용은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 여대

생이 한국 여대생보다 주간 청바지 착용 빈도가 더 많은 편이라 볼 수 있다.

국 가	빈도 (%)		
	한국	중국	합계
보유별수			
1~2벌	15 (8.8)	8 (6.0)	23 (7.5)
3~4벌	41 (24.0)	37 (27.6)	78 (25.6)
5~6벌	42 (24.6)	32 (23.9)	74 (24.3)
7~8벌	30 (17.5)	32 (23.9)	62 (20.3)
9벌이상	43 (25.1)	25 (18.7)	68 (22.3)
합계	171 (100)	134 (100)	305 (100)
$\chi^2 = 4.088$			

[표 11] 청바지 보유별수 * $p < 0.5$ * $p < 0.01$, ** $p < 0.001$

보유 청바지 벌수는 한국이 9벌 이상(25.1%)이 중국은 3~4벌(27.6%)로 한국이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5~6벌 이상 (한국24.6%/중국23.9%) > 3~4벌 이상 (한국24.0% / 중국27.6%) 으로 보유벌수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양국 간 청바지 보유 벌수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유 벌수는 양국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2. 청바지 구매 시 중시부분과 수선부분 고찰

청바지 구매 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한국은 실루엣(35.1%) > 디자인(32.2%) > 색상(위상14%) > 맞춤새(8.8%) 순으로, 중국은 디자인(39.6%) > 맞춤새(20.9%) > 가격(12.7%) > 착용감과 편안함(11.9%) 순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여대생은 실루엣과 디자인을 중국 여대생은 디자인과 맞춤새를 중요시하여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양국 모두 착용감 및 편안함을 추구하는 결과 중에 (한국: 7.6% 중국: 11.9%) 제품 선택에 다른 요소를 보여 주는데 한국은 스트레치 소재의 특성(2.9%)을 고려해 신체에 잘 맞는 것을 추구 하였고, 중국은 제품치수가(6%) 신체보다 큰 것을 선택하여 착용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N=305)

특성	한국		중국	
	빈도	(%)	빈도	(%)
디자인	55	32.2	53	39.6
가격	5	2.9	17	12.7
맞음새	15	8.8	28	20.9
치수	3	1.8	8	6.0
유행	1	0.6	4	3.0
색상 (워싱)	24	14.0	4	3.0
실루엣	60	35.1	4	3.0
디테일	2	1.2	2	1.5
소재 (스트레치정도)	5	2.9	1	0.7
착용감 및 편안함	13	7.6	16	11.9
합계	183	(107.0)*	137	(102.2)*

[표12] 청바지 구매 시 가장 중시하는 부분 *복수응답

양국 간 청바지 불만족으로 인한 수선여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선여부	빈도 (%)		
	한국	중국	합계
수선한다	76 (44.4)	108 (80.6)	184 (60.3)
수선하지않는다	95 (55.6)	26 (19.4)	121 (38.7)
합계	171 (100)	134 (100)	305 (100)

$\chi^2=41.028^{***}$
***p<0.001

[표 13] 청바지 구매 시 사이즈 불만족으로 인한 수선여부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청바지 구매 시 사이즈 불만족으로 인해 수선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한국은 수선하는 경우보다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수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에 따른 수선여부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N=305)

수선부분	한국		중국	
	빈도	(%)	빈도	(%)
바지길이줄임	53	31.0	53	39.6
허리늘임	0	0.0	19	14.2
허리줄임	23	13.5	24	17.9
엉덩이늘임	1	0.6	12	9.0
엉덩이줄임	1	0.6	7	5.2
넙다리늘임	3	1.8	12	9.0
넙다리줄임	3	1.8	1	.7
무릎줄임	2	1.2	0	0.0
무릎늘임	0	0.0	4	3.0
전체적인바지통줄임	15	8.8	0	0.0
합계	101	(59.1)*	132	(98.5)*

[표 14] 청바지 수선 부분 *복수응답

양국 간 구입 후 주로 수선하는 부위는 바지 길이 (한국:31.0% 중국:39.6%)와 허리둘레(한국: 줄임13.5% 늘림0% 중국: 줄임17.9% 늘림1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별로 청바지 착용 시 불편한 부위와 그에 따른 수선부위를 교차 분석한 임지영 (2006)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바지 길이의 수선여부는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이 하여 기존 제품의 바지 길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와 20대 여성의 허리와 넙다리, 엉덩이, 배, 장딴지의 불편한 부위 순으로 수선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수선이 용이하지 않은 엉덩이둘레나 넙다리 부위에 맞추어 일단 구입한 후 비교적 수선이 용이한 허리둘레를 수선하는 것으로 결과가 일치한다.

한국은 중국보다 실루엣을 까다롭게 골라 구매하는데 (한국:63.2% 중국:60.7%), 수선 부분의 폭은 넓지만 (바지길이 줄임= 한국:31.0% 중국:39.6%/ 허리 줄임 = 한국:13.5%중국:17.9%/ 넙다리 줄임=한국:1.8% 중국:9.0% 넙다리 늘임=한국:1.8% 중국:0.7%/ 무릎 줄임= 한국:1.2% 중국:0%/ 바지통 줄임=한국:8.8% 중국:0%) 수선 횟수는 적은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44.4% 중국:80.6%)

이는 디자인과 실루엣 스타일을 제일 먼저 고려하여 구매하고 부분 맞음새는 수선하여 착용감 및 편안함을 나중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중국도 디자인을 제일 먼저 고려하여 청바지를 구

매 하지만 맞춤새([표 12] 20.9%)와 착용감 및 편안함([표 12] 11.9%)을 우선시하여 구매한다. 또한 가격([표 12] 12.7%)도 구매요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보다 경제적이면서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보여준다. 양국 간 청바지 구매 시 특성 중시 정도 차이는 디자인과 실루엣, 색상분야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거나, 치수 및 가격에서는 유의사항이 없어 양국이 공통적인 구매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305)

특성	국가	평균	표준 편차	t
디자인	한국 (n=171)	4.61	0.51	7.145***
	중국 (n=134)	4.04	0.82	
치수	한국 (n=171)	4.39	0.67	.049
	중국 (n=134)	4.39	0.65	
유행	한국 (n=171)	3.34	0.85	-6.950***
	중국 (n=134)	3.97	0.74	
가격	한국 (n=171)	3.80	0.74	.219
	중국 (n=134)	3.78	0.78	
실루엣	한국 (n=171)	4.55	0.63	8.355***
	중국 (n=134)	3.91	0.70	
맞음새	한국 (n=171)	4.25	0.67	2.100*
	중국 (n=134)	4.07	0.75	
착용감 및 안정감	한국 (n=171)	4.22	0.82	-1.593
	중국 (n=134)	4.37	0.73	
디테일	한국 (n=171)	3.64	0.89	-2.149*
	중국 (n=134)	3.84	0.78	
소재 스트레치 정도	한국 (n=171)	3.86	0.78	-1.408
	중국 (n=134)	3.99	0.76	
색상	한국 (n=171)	4.28	0.71	3.395**
	중국 (n=134)	4.00	0.73	

*p<.05, **p<.01, ***p<.001

[표 15]청바지 구매 시 제품특성 중시정도의 차이

양국 간 청바지 구매 시 제품 특성 중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바지 제품특성 중, 디자인, 유행, 실루엣, 맞춤새, 디테일, 색상 부분에 있어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5]. 결과를 살펴보면 유행이나 디테일의 경우 중국이 더 구매 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디자인, 실루엣, 맞춤새, 색상에 있어서는 구매 시 한국이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한국보다 세부적인 장식에 의해 나타나는 유행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중국 여대생의 주간 청바지 구매 횟수가 한국에 비해 높은 것 역시 이와 관련하여 유행을 따라 자주 청바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305)

신체 부위	국가	평균	표준 편차	t
허리둘레	한국 (n=171)	4.20	0.70	.216
	중국 (n=134)	4.19	0.76	
엉덩이둘레	한국 (n=171)	4.15	0.75	-1.746
	중국 (n=134)	4.30	0.69	
넙다리둘레	한국 (n=171)	4.19	0.75	1.362
	중국 (n=134)	4.07	0.75	
무릎둘레	한국 (n=171)	3.15	0.75	-3.219**
	중국 (n=134)	3.43	0.79	

**p<.01

[표 16]청바지 구매 시 신체부위 중시정도 차이

양국 간 청바지 구매 시 신체 부위 중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체부위 중, 무릎둘레에 있어서만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6] 결과를 살펴보면 청바지 구매시, 한국여대생보다 중국여대생이 더 무릎둘레를 신경 쓰는 것으로 나왔으며, 그 외 허리, 엉덩이, 넙다리 둘레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집단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나머지 신체부위는 모두 구매 시 중시하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표 2]에서 보여준 선호 청바지 스타일의 결과와 일치하며 중국은 한국보

다 평이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편안한 맞음새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N=305)

디자인 특성	국가	평균	표준편차	t
허리선의 위치	한국(n=171)	3.84	0.79	.417
	중국 (n=134)	3.80	0.78	
바지길이	한국 (n=171)	3.65	0.86	-1.480
	중국 (n=134)	3.80	0.82	
바지통	한국 (n=171)	4.17	0.69	5.443***
	중국 (n=134)	3.72	0.74	
바지단의 폭	한국 (n=171)	3.95	0.77	3.317**
	중국 (n=134)	3.66	0.75	

p<.01, *p<.001

[표 17] 청바지 구매시 디자인특성 중시 정도차이

양국 간 청바지 구매 시 디자인 특성 중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바지통과 바지단의 폭 부분에 있어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7] 결과를 살펴보면 바지통과 바지단의 폭 모두 청바지 구매시, 한국인들이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통은 디자인 실루엣과 맞음새와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표 14]의 결과처럼 한국만이 전체적인 통줄임 수선율(8.8%) 하여 좁은 통의 디자인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N=305)

신체부위	국가	평균	표준편차	t
허리둘레	한국(n=171)	2.88	1.08	1.400
	중국 (n=134)	2.72	0.92	
엉덩이둘레	한국 (n=171)	2.25	0.85	-3.910***
	중국 (n=134)	2.60	0.73	
넙다리둘레	한국 (n=171)	2.02	0.82	-7.718***
	중국 (n=134)	2.74	0.79	
무릎둘레	한국 (n=171)	2.74	0.88	-3.108**
	중국 (n=134)	3.04	0.77	

*p<.05, **p<.01, ***p<.001

[표 18]청바지 구매시 신체부위 맞음새 정도차이

양 국간 신체부위와 맞음새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엉덩이둘레, 넙다리 둘레, 무릎 둘레 부분에 있어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신체부위별 맞음새 보다는 선호디자인의 특성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중국은 한국보다 신체부위에 맞음새를 더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이는 수선부분조사 [표 14]의 결과와 일치하며 중국은 허리, 엉덩이, 넙다리 부분을 줄이는 것만 아니라 늘리기도 하여 디자인 실루엣을 중시하지만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N=305)

신체부위	국가	평균	표준편차	t
바지통	한국(n=171)	2.50	0.90	-5.398***
	중국(n=134)	3.02	0.80	
바지단폭	한국(n=171)	2.78	0.98	-2.186*
	중국(n=134)	3.01	0.81	

*p<.05, ***p<.001

[표 19] 청바지 구매시 디자인 특성 맞음새 정도 차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매우 좁다) ~ 5점(매우 넓다) 으로 측정 하였는데, 매우 좁다- 좁다-보통이다 -넓다- 매우넓다 등 바지통 넓고 좁음을 배치 표시하였다.

양국 간 청바지 구매 시 선호하는 청바지 맞음새 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바지통과 바지단의 폭 모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9] 결과를 살펴보면 바지통과 바지단의 폭 모두 한국여대생이 중국여대생보다 좁은 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지통은 양국 간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표 17]에서 보듯이 청바지 구매 시, 바지통과 바지단의 폭과 연관되어 있고 디자인특성 맞음새 정도의 차이 내용에서 한국여대생이 폭과 통 모두 좁은 것을 중시하고 스키니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여대생과 중국여대생의 청바지의 선호디자인과 맞음새에 따른 착용실태 및 체형에 대

해 조사,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결과를 통해 한국과 중국여대생의 청바지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청바지업체의 디자인과 고품질 생산에 참고할 수 있고자 하였다.

한국여대생은 중국여대생보다 청바지 보유수가 많고 착용 횟수는 적었다.

연간 구매 횟수는 양국 비슷한 성향이었으며 체형이 한국여대생보다 중국여대생이 큰 경향으로 구매사이즈가 한국은 26인치, 중국은 27인치가 가장 많았다.

한국은 밑위길이를 짧게 입고 좁은 스키니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 중국은 중간 이상의 밑위길이를 선호하였다.

양국 모두 엉덩이 둘레를 기준으로 바지를 구입하여 나머지 부분 사이즈를 수선하였는데, 가장 많은 수선 부분은 바지 길이였으며, 허리를 줄이는 경향

(한국:13.5%, 중국:17.9%)이 있었지만 중국만이 허리를 늘리는 경향을 보여(14.2%) 상이한 맞춤새를 보였다.

전체적인 청바지 보유 별수에 비교해 착용횟수가 적은 한국은 중국보다 까다롭게 청바지를 고르고 유행 경향에 민감하며 수선 부분의 폭은 넓지만 수선횟수는 적어(한국:44.4% 중국:80.6%) 디자인과 실루엣, 스타일을 제일 먼저 고려하여 구매를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양국 모두 신체의 맞는 느낌을 중요시하였고 착용감 및 편안함(한국: 7.6% 중국:11.9%)에 있어 상이한 선택을 보였는데, 중국여대생은 신체보다 큰 치수를 입어서(6%) 편안함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여대생은 착용감 및 편안함의 요인을 스트레치 소재의 특성(2.9%)을 감안하여 청바지가 신체에 맞는 느낌을 추구 하였다.

한국 여대생은 청바지의 맞춤새와 디자인, 실루엣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기본보다 낮은 허리선에 좁은 바지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고, 청바지 사이즈와 맞춤새의 정도도 중간 허리선 위치를 선호함으로써 편안함을 차선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국 모두 치수, 가격의 항목에서 유의사항이 없었으며, 보유별수를 고려했을 때 청바지 선택의 중요 요소로는 디자인 요소가 공통적으로 먼저 우선시 되었으며, 다음으로 한국은 실루엣을, 중국은 착용감 및 안정감을 더 추구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과 상해지역의 두 나라 대도시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두 나라 전체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대도시 거주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지방과 대도시의 지역 차이, 연령 등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다면 수선률을 줄이고 기능성과 심미성이 충족된 최적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실질적인 의복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고객 충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애란 (1994) 국내 및 외국상표 청바지의 구매 의도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신념과 추구 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2), 263-272.
- 김선희, 김혜수, 전미선, (2008) Hipbon 청바지의 밑위길이가 변화에 따른 여대생의 청바지 착용 및 인지 비교 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6(6), 1087~1098.
- 김양원 (2001)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와 불만족 실태. 『한국생활학회지』 10(1), 96.
- 김현아, 천종숙, (2004) 20대 여성의 기성복 바지 맞춤새와 하반신 체형인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2(4), 638~647
- 어미경, 서미아 (2007) 캐주얼 브랜드의 청바지 생산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4), 702~712.
- 이영주 (1999) 비만체형의 슬랙스 원형설계를 위한 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의 비교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2), 290.
- 이정숙, 성수광 (2003) 진 슬랙스 구입 및 수선에 관한 실태조사 -18~23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5(2), 153-158.
- 이희승, 임숙자 (2000) 가격과 상표가 의복의 지각된 품질, 가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4), 498-509.
- 임지영 (2006) 연령에 따른 여성의 청바지 착용 실태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4), 413~419.
- 정재은, 이순원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57.
- 천종숙, 박진순 (2003) 인터넷 의류 판매용 가상 피팅 모델의 개발을 위한 여성의 신체치수 인지에 관

- 한 연구. 『한국 감성과학회지』 6(1), 25.
- 천종숙 (2005) 『패션 비즈니스의 이해를 위한 의류 상품학』 . 서울: 교문사.
 - 최선형, 오현주 (2001). 미국거주 경험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 여성의 의복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1), 11-27.
 - Choi E. A. (2007) 「A Searching Method for the Style Features of Fashion Jean Pants 」
(Master's These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pp.7-8.
 - Eckman M. & Damhorest M.L., Kadolph S.J.(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Vol.8 No.2 p.19.